

한국 번역사에서 본 조선조 언해(諺解) 번역*

유 명 우
(호남대)

1. 들어가는 말

번역이론의 중심과제의 하나인 번역사(翻譯史)에 대한 관심은 현대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 응용 언어학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자리 잡은 것과 때를 같이한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국제적으로 정보화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다 언어사회(Multi-lingual society)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번역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다. 번역사는 이러한 현대 번역 교육의 열개로서 언어사와는 별도로 새로운 조명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다. 번역이 이론이나 아니면 실재이나 하는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서도 번역사의 위치는 보다 확실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 가고 있다.

본론의 <한국번역사>라는 주제는 한국의 번역이론 연구가 초기 단계인 현

* 본 논문은 호남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로 연구되었음.

시점에서 한국학의 체계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해서 생경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 번역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번역사’라는 시각에서의 연구가 일천(日淺)하고 아직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어가 역사적으로 이웃 중국, 일본, 몽고, 만주 등의 언어와 빈번히 접촉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식이든 특유의 번역현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언어학의 일반적 논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두 언어가 만나는 곳에는 언제나 번역현상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번역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번역사>는 결국 역사적으로 한국어가 이러한 이웃 언어들과 어떠한 교류를 했으며 그러한 교류가 준 문화적 사회적 영향이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보고자 하는 과제는 한국 번역사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한국 번역사에서 가장 중심에서 있는 과제인 한글의 창제와 그 한글을 이용한 언해(諺解)번역이 한국 번역사의 관점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자를 주 문자로 채택해 사용해 오면서도 이 한자를 이용하여 이두(吏讀), 향찰(鄕札), 구결(口訣)과 같은 독특한 차자법(借字法)을 개발하였다.¹⁾ 그러나 이 차자법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은 오래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두가 한국어를 표기하는데 적합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었을까 하는 문제이다. 비록 한자를 주문자로 채택하여 발달한 중국 문명을 받아 드리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한문이 지닌 독특한 뜻글자로서의 기능이 일상의 한국어를 표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해 주었으리라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한문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상의 말을 한자차자법으로 보완하면서 거의 천년간을 견디어 오다가 마침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이러한 불편을 일거에 해소코자 시도한 것이 한글 창제의 동기라고 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한글 창제의 직접적인 동기를 이두가 지닌 표기법으로서의 부적합성에서 찾겠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새로 태어난 한글의 기능은 우선적으로 이두가 담당해오던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 있었

1)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이 차자법을 신라의 설총(薛聰)이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보인다.

을 것이다. 여기서 번역으로서 언해는 한글의 효용성을 증명해주는 현실적인 방안이었을 것이며 조선조가 지속적으로 언해를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이유가 설명된다. 본고의 목적은 우선 이두가 한글 창제 시까지 약 천년간 감당해 오던 역할이 바로 번역이거나 적어도 번역현상이었다는 것을 논의해보고 만약 이두가 한문으로는 할 수 없는 번역의 기능을 수행했다면 한글은 이러한 이두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해야하는 태생적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서 언해 번역의 의의를 규명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이두 대신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한글이 이두 이상의 기능을 해내었고 마침내는 한국의 주문자의 기능을 능히 감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한국 번역사 연구에 부과된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으로서의 이두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번역의 기능을 이어서 수행한 언해번역은 <한국번역사>에서 한문의 굴레를 벗어나서 한글의 전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가교(架橋)와 같은 기능이 있었음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이두(吏讀)가 번역인가?

한자가 한반도에 전래된 시기나 그 과정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지만 본고의 본래의 목적은 아니다. 다만 한자가 수입되어 한자 본래의 표기법대로 쓰이면서도 다른 한편 한국어를 표기하는 차자법(借字法)으로 개발되고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당시 구어(口語)로 불리던 노래를 받아 적음으로서 번역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한다. 이두는 분명히 한자를 원용(援用)하고 변용한 하나의 표기법이다. 표기법 자체가 번역이나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번역의 의미가 너무나 확대되어 번역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된다.

그러나 번역과 표기법과의 관계는 낚시질과 낚시대만큼이나 가까운 것이고 밀착되어 있다. 이두가 번역에 처음 쓰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는 조선조 초기 1395(태조4)년 고사경, 김지 등이 명나라의 법률을 이두로 번역한 <대명률직해>를 두고 말한다. 대명률은 원전이 있었기에 이를 이두 번역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한국 최초의 이두번역이라고 국어 학계에서는 주장한다. 그러나 향가의 경우도 엄연히 이두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가가

비록 이두로 표기는 되어 있어도 원전이 없기에 이를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번역의 본질을 간과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영문편지를 읽고 한국어로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경우를 우리는 독본구역 또는 시역(sight translation)이라 부르며 번역교육의 한 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를 상정하여 본다면 받아쓰기의 경우이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받아 적으면 이는 받아쓰기(dictation)라고 한다. 이 받아쓰기의 경우 한국어로 듣고 영어로 썼다면 이를 단순한 받아쓰기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분명히 번역의 일종인 필역(筆譯)(dictating translation)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로 노래한 내용을 이두의 한 양식인 향찰(鄉札)로 받아 적은 것이 향가라 할 수 있다. 번역은 “다른 두 언어간에 일어나는 정보나 지식의 이동(移動)이나 재현(再現)을 두고 일컫는 말”이라면 한국어로 노래한 것을 한자어로 만들어진 이두로 재현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은 가시적인 것이 아닌 소리로 된 것이기에 이를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반드시 번역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한국의 번역사를 논하는 경우 마치 우리의 번역사가 우리의 긴 역사의 중간쯤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고대사에는 언어나 문자가 없었던 역사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두 번역을 좀더 자세히 검토해보면 초기에는 단순한 고유명사를 옮긴 것이 대부분이다. <광개토경평호태왕비>에 기록된 고유명사 표기로 보이는 예를 보면 가라(加羅), 임나(任那), 아차성(阿且城), 신라(新羅) 등이 있다. 이러한 표기는 서울을 영어로 <Seoul>로 하듯이 한자의 음을 빌려 한국어의 뜻이나 음을 옮긴 것이다. 이러한 번역을 전사(transliteration) 또는 전재(transcription)이라고 하며 <camera>를 <사진기>로 하면 의미번역이며 <카메라>라고 하면 음역 또는 전사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고유명사를 한자로 표기하고 난 후에 차자법은 좀더 발전하여 의국체(擬國體)²⁾로 옮겨갔다. 의국체란 국어의 형태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문법소(function word)를 표기하지 않았을 뿐 어순배열이 국어의 통사구조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다음은 ‘임신서기석’에 나타난 의국체의 한 예이다.

2) 6세기 중엽의 것으로 보이는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에 나타난 문장을 흔히 서기체(誓記體)라고 한다. 그러나 이 비문에만 이러한 문체를 쓴 것이 아니며 국어적인 통사구조로 표기되어있으므로 이를 ‘의국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신년 유월 십육일에 두 사람은 함께 맹세하고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삼 년 이후 충성의 도를 항상 지녀서 과실 없기를 맹세한다.”

: (任申年六月十六日二人并誓記天前誓今自三年以後忠道執持過失尤誓苦此事失)

의국체는 한자로 되어 있으나 한문의 순서가 아니고 한국어의 어순과 문법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국체를 넓은 의미에서 이두법이라하며 따라서 이두법은 한자를 원용하여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자차자법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소의 특징에 따른 별칭(別稱)이 있고 이칭(異稱)이 있으나 논문의 편리상 향찰이나 구결도 이두의 범주에 넣어 통칭하고자 한다. 의국체에서는 의미소만을 한국어 어순대로 표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두문이 등장한다. 의국체에는 문법소가 없기 때문에 한국어의 통사구조상으로 볼 때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표기법이었으며 또한 한국어가 교착어로서 의미어의 국어식 나열만으로는 의미전달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이를 극복하고 보완하여 문법소를 함께 쓴 것이 이두문이다. 의국체와 다른 점을 검토하기위해서 <대명률직해>에서 이두문의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 凡妻無應出及義絕之狀而出之者杖八十雖犯七出有三不去而出之者減二等追還完娶 <아> 凡妻亦可黜可絕之事無去乙黜送爲在乙良杖八十齊必于七出乙犯爲去乃三不去有去乙黜送爲在乙良減二等遣婦女還本夫齊 (대명률직해6,9b)

위의 한문을 이두로 번역한 예문으로서 특히 밑줄친 부분은 한국어의 문법소를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으로서 無去乙=없거늘 爲去乃 =하거나 爲去乙=하거늘 亦=-이,-이라(고) 등으로 문법소를 한자로 표기했으나 그 내용은 한국어를 음으로나 훈으로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이두 표기법은 향가를 표기하는데 이르러서는 상당히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전해 내려오는 노래를 이두표기법을 사용하여 기록해둔 것이 향가(鄉歌)이며 여기에 사용된 이두를 특히 향찰(鄉札)이라 부른다. 또 다른 이두법의 한 가지는 구결(口訣)이라 하는 것인데 이 표기법은 한문을 읽을 때 토를 달아 읽는 방법이다. 김동소(1998:29)에 따르

면 “이두의 가장 초기형태에 이미 입꺠이 나타나는 셈이지만, 일반적으로 입꺠이라 하면 한문문장에 삽입하는 것만을 말한다.” 구꺠의 한국식 표기인 입꺠은 한문의 문장사이에 삽입하여 문맥을 한국어식으로 표기하는 허사를 말한다. 이 구꺠은 원문인 한문을 한국어식으로 읽어서 그 뜻을 파악하게 하는 도구의 구꺠을 한 것이므로 엄연히 번역의 일종으로 보아야한다.

이상에서 검토 해본바와 같이 이두는 어떤 특정한 원본을 번역한 번역문은 아니지만 고유명사의 한국식표기라든가 글의 문법소를 한자를 빌려서 표기한다든가 문장의 문법소의 기능을 가진 토를 달아 원문읽기에 도움을 준다든가 해서 음운체계가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판단하면 이두로 총칭되는 이 차자표기법은 고대와 중세에 있었던 한국 특유의 번역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문을 도입해서 그대로 쓴 것을 한국한문학이라 한다면 이두, 향찰, 구꺠과 같은 한자차자법은 분명히 한국어가 자신의 문자를 갖지 못했던 시절, 자신의 음운을 제대로 표기 해보고자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필자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이두 그자체가 아니라 이두가 지닌 번역적 기능이 새로 창제된 한글어로 옮겨 왔다는 배경을 논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는 번역사의 연구는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의 관심사인 개꺠 번역의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그 번역이 끼친 사회 문화적 영향에 관심을 두어야하기 때문이며 다른 언어나 다음 시대의 언어와의 관련성에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이두(吏讀)와 훈민정음(訓民正音)

한글이 이두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리는 학계에서 공인된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한글 창제라는 과제를 두고 그 전후에 벌어진 논쟁을 미루어 보면 한글의 창제는 분명히 이두가 지닌 언어체계로서의 약점을 카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글 창제를 반대하여 상소문을 올린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1446)의 주장을 보면 이두가 엄연히 백성을 위한 문자로 존재하는데 구태여 새로 문자를 만들어 어문 생활에 혼란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나아가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서 중국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상당히 충성스러운 주장이었다.

이두문을 수천 년 동안 써 왔으나 ‘부서(簿書)기회(期會)’등에 탈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폐단 없이 사용되는 문자를 고치려 하나이까(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期會等事 無有防礙者 向用改舊 行無弊之文) (최만리 상소문의 일부)

세종이 한글 창제의 목적을 이두의 폐단, 다시 말해서 이두의 표기법으로서의 불완전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최만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바로 한글이 주문자인 한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문의 보완용으로 만들어서 오래 동안 써 내려온 이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한글창제의 직접적인 동기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서 한글의 창제자인 세종(1445)은 직접 최만리의 이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이두를 만든 진의가 백성을 편하게 해주지는 것이 아닌가. 백성을 편안케 하지는 일이라면 지금의 언문 역시 백성을 편안케 하지는 것이다. 너희는 설총의 이두는 백성을 편안케 하고 군상의 언문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니 어찌된 일인가?(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亦 不爲便民乎 汝等以薛聰爲是 而非其君上之事 何哉)

세종이 최만리의 상소에 대한 반박은 새로운 글을 만드는 목적이 백성을 편안케 하지는 것임을 강조하는 데에 논거를 두고 있다. 설총의 이두는 백성을 편안케 하고 군상의 언문은 그러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이두를 옹호하려는 입장과 이두를 대신할 새로운 문자를 만들려는 입장사이에 벌어진 공수논박(攻守論駁)이다. 세종은 자신의 어문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엄한 벌을 내리는 대신 논리적인 반론으로 대신함으로써 학자로서의 금도와 품위를 지키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두에 대치할 새로운 문자를 창제해야 한다는 이러한 논지는 정인지의 『해례본훈민정음』(1446)의 서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문자는 남의 학문을 받아드리는 데도 필요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 실용적으로 써야 할 예로 치옥(治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옛날 설총으로부터 시작된 이두가 관부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으나 한자를 빌어서 쓰

는 것이기에 매끄럽지 못하고 때로는 어떻게 기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비루하고 일정한 법칙이 없으므로 실지 사용에 제대로 통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이두에 대한 비판은 새로 만든 언문의 옹호로 이어진다. “불과 28자로 천지인(天地人) 삼극(三極)의 뜻과 음양(陰陽)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한문을 풀어 써놓으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고 소리를 받아 적으면 그 정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청탁의 음운을 구별하고 음악적인 운율이 있으며 바람소리, 학우는 소리, 닭소리 개짖는 소리 등 표현 못할 것이 없다”고 했다. 못 나타내는 소리가 없고 표현 못하는 뜻이 없다는 극찬의 표현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주장하고 있다.(『해례본훈민정음』, 1446)

이러한 주장을 요약한다면 배대운이 『역대 이두사전』(2003:25)에서 “훈민정음의 제정은 일찍부터 국어인식의 구체적인 모습인 차자표기 라고 하는 불완전한 문자생활에서 벗어나 보다 완벽한 문자에 대한 욕구의 산물로 이해되고,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제정의 의미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두는 훈민정음이 제정되고 나서도 상당 기간 사용되었다. 이는 비록 왕이 주도하여 문자를 새로 제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사용하지 않고 양자간의 경쟁체제하에서 새문자의 우월성을 현시하고자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두와의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새문자의 효용가치를 드높이는 방안이 모색 되었을 것이며 그 방안의 하나가 바로 ‘언해번역’이었다. 이는 그간 이두가 불완전하게나마 번역의 기능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反證)이며 이 반증은 역사적으로 마침내 성공적이었다고 판명된 것이다. 이러한 ‘언해번역의 성공’이 후일 한글을 국문(國文)으로 채택해도 무방하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이라 판단된다.

4. 한국번역사에서의 언해번역

<한국번역사>에서의 언해번역이라는 과제를 다루는 일은 단순히 일반 언어사에서나 문학사에서 다루는 방향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해

번역의 역사나 한국어의 발달 과정에 대한 과제는 이미 국어 국문학에서 그 동안 상당한 연구 실적을 쌓고 있는 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본고에서는 뫼(Anthony Pym) 교수의 가설 『번역사 방법론』(*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1998)>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번역사 연구의 방향을 네 가지 가설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번역사는 왜 사회적으로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서 번역이 이루어 졌는가를 설명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번역이 이루어진 사회적 원인을 밝혀야한다. 2)번역사가 밝히고자하는 역사적 지식의 중심과제는 번역의 텍스트나 그 텍스트가 지닌 내용이나 언어적인 특징보다는 그 텍스트를 번역한 번역가에게 집중되어야한다. 그 이유는 사회적 원인에 상응하는 책임은 번역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며 특정한 번역이 이루어 진 이유 역시 번역가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만약 번역의 역사가 번역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된다면 번역사는 번역가가 활동했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번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는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어야 한다.³⁾

뫼의 이러한 주장은 언어학적인 접근과 번역사적인 접근을 구별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주고 있다. 번역사는 언어사와 거의 같은 자료를 다루는 관계로 접근하는 방향을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할 관계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번역학에서 접근하고 하는 역사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언어학이나 언어 발달사의 연구영역이었으므로 번역의 역사가 별도의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뫼교수가 제시한 가설은 번역의 내용과 언어적인 특징에 대한 연구를 번역사의 주된 관심사에서 배제하고 번역이 이루어진 사회문화적 여건과 배경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서 번역사의 입장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국어학계에서 조선조 언해번역이 지닌 언어적인 특징이나 내용상의 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면 번역사의 입장에서는 언해번역을 창시한 ‘세종은 번역가’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그가 시도한 언해번역

3) Anthony Pym은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1998)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사의 원칙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Here again are my four general principles for a particular kind of translation history: attention to causation, a focus on the human translation, a hypothesis projecting intercultral belonging, and the priority of the present. None of these ideas are radically new; they all float in the intellectual air of our age. What might be new, though, is that I have sought to make them talk, together, in terms of the actual practice of translation history.

을 조선조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번역사>는 “한국어가 주변의 외국어와 지식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고 전달했는지에 관한 기술(記述)”이라고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좀더 가까이 접근해 보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아주 일찍이 한자를 도입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한자(漢字)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언어학이나 번역학 그 어느 것도 논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만큼 한자는 우리의 어문(語文)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문자이므로 한국의 번역사 역시 ‘한자와의 관계’라는 틀 속에서 고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직접적인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한국번역사>라는 맥락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번역의 다른 형태인 통역의 경우 신라시대에 이미 ‘영객전’(領客典)을 두어 일본어와의 교류를 담당케 했고, 고려조에는 충렬왕 2년(1276)에 ‘통문관’(通文館)을 설치하여 몽고어, 만주어, 중국어, 등을 교육하고 이문(吏文)도 함께 익히도록 하여 외국어와의 교류에 대비하고 이두를 통하여 실무 기록을 담당케 하였다. 특히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태조 2년(1393)에 고려조의 통문관을 ‘사역원’(司譯院)으로 확대 개편하여 병(兵)·율(律)·자(字)·역(譯)·의(醫)·산(算)의 육학(六學)중에서 역학(譯學)을 담당(擔當) 토록 했다. 역학(譯學)이라는 용어는 조선조 육학의 하나로서 통역과 통역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칭하는 말이었다. 오늘날 영어<Translation Studies>를 <번역학>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역사적 근거이기도하다. 또한 조선조 태종6년(1406)에는 이 육학에 유(儒)·이(吏)·음양(陰陽)·풍수(風水)·약학(藥學)을 추가하여 10학을 두었다. 이때 이학(吏學)은 이두(吏讀) 또는 이문(吏文)에 대한 교육이었으며 이는 조선조 초기에 이미 역어(譯語)와 이두(吏讀)교육을 통한 통역사 양성에 적극적으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가 설치한 기관에서는 역학이라는 독립적인 영역을 설치하고 외국어 교육을 통한 역관(譯官)을 양성에 노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역관 교육에 쓰이는 교재를 편찬했다. 특히 조선조의 사역원에서는 한어의 어휘집인 역어유해(譯語類解)를 비롯하여 몽어유해(蒙語類解) 동문유해(同文類解), 왜어유해(倭語類解)등을 편찬하여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사전으로 활용하였고 몽학(蒙學)삼서(三書)라고 하는 『몽어노걸대』, 『침해몽어』, 『몽어유해』 등을 편찬하여 몽고어 학습에 사용하였다. 일본어의 경우에도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 지면서 통역을 위한 교육용

교재가 언해 형식으로 편찬되었다(한국어학연구회:478).

통역이 번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고에서는 통역관의 양성과 통역의 역사의 문제를 같이 다룰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번역과 통역은 어떤 한 언어로 표현된 지식과 정보를 다른 말로 옮기고 재현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은 번역이지만 통역은 보다 실무적이고 목적적이며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자로 하는 번역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번역이 문화가치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통역은 업무수행과 같은 현실적인 목적에 따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번역사>에서 ‘언해번역’이 지니고 있는 위상과 의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번역사> 전반에 걸친 문제는 다른 연구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다소 다른 특징은 있으나 이웃 일본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히라가나>와 <가타가나> 역시 일종의 독특한 한자차자표기법이다. 일본이 결국 한자차자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차자법과는 전혀 다른 음운체계인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개발한 것은 일본과는 달리 한자문화권에서 두드러진 새로운 문자문화를 창조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과 그의 업적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한글전용의 의미는 한국문화가 한문문화에서 얼마나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성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한글 전용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조선조 초기의 언해번역이 겪었던 상황과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사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자신은 한문을 배제하고 훈민정음을 전용(專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적은 문헌상으로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한글 전용은 마치 세종의 뜻인 양하여 오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새삼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본고의 취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한다.

다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논거는 훈민정음의 창제와 언해번역을 분기점으로 해서 <한국번역사>는 한자차자법 번역의 시대에서 언해번역의 시대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한국의 번역사를 이미 한국 「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에서 1) <한자차자법번역의 시대> 2) <언해번역의 시대>

3) <한글번역의 시대>로 시대구분을 하였다. 그 근거는 이두, 향찰, 구결 등의 한자차자법으로 한문읽기와 번역을 수행했던 신라, 고려조는 훈민정음을 통한 언해번역을 수행했던 조선조와는 번역현상과 번역에 대한 정책 자체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자를 한자차자법번역의 시대라하고 후자를 언해번역의 시대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갑오경장(1894)에서 ‘한글을 국문으로 공인’한 이후 한글 전용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주한 종한(主漢從韓)에서 한글이 주문이 되고 한문이 종속의 글로 전락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해번역이라는 보조적인 번역현상에서 벗어나는 엄연히 다른 시대로서 ‘한글번역의 시대’라 부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조선조에서도 이두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노비문서나 일부 행정문서 등 특수한 기록물에 한정되었고 주종은 언해번역이었다.⁴⁾ 앞장에서 논의했듯이 ‘한자차자법번역의 시대’는 이두번역으로 한국어문현상에 맞지 않는 한문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대였다면 언해번역의 시대는 이두번역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시운전해본 시기였으며 이는 다시 한글 전용의 시대를 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한자가 엄연히 공식 표기문자이고 한문교육은 궁중이나 민간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해온 터인데 새롭게 문자를 만들어 쓴다는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 더구나 최만리 같은 일부 지식인사이에서 정음 창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던 상황이고 보면 세종의 새로운 문자의 창제라는 결정은 비록 왕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며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문자의 현실적 효용가치 여부는 당사자인 세종만이 아니라 당시 조정이 가졌던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따라서 한글은 창제되는 순간부터 그 창제의 의의를 검증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며 세종은 이러한 문제를 언해번역을 통해서 해결 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언해번역은 한글창제의 의의를 확인하는 현실적 방안이었으며 동시에 한글 창제의 직접적인 목적이기도 했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인하여 우리민족은 독특한 표음문자를 가지게 되었고 이로써 복잡 다양하던 한문의 발음을 표준화(標準化)시키고 이두의 구결 대신에 언문으로 토(吐)를 달아 읽음으로서 한문 원문의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

4) 「한국번역사 정리를 위한 시론」(유명우, 2002:32).

었으며 나아가서 국가시책의 홍보와 백성의 뜻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세종은 이러한 한글창제과정에서 대개의 왕들이 그렇게 했듯이 학자들에게 맡기고 사후 보고나 받는 식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어문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입수하고 익혔으며 스스로 언어학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서 학자로서의 풍모를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다. 한글이 반포된 후에도 이를 방치(放置)하지 않고 언해번역을 통해서 한글의 실용적 가치를 확인하기위해서 진력(盡力)했다. 이러한 어문정책은 후대에도 지속되어 언해번역은 조선조 여러 왕들과 왕정에 참여한 사대부들이 계속해 내려온 것으로 본다. 왜 언해가 아니고 언해번역인가? 언해라는 말에는 엄연히 번역의 뜻이 실려 있다. 언해란 “한글을 언문(諺文)이라 부르던 조선시대에 한문이나 백화문으로 된 원전을 한글로써 번역하는 일 또는 번역한 작품을 말한다. 한문원전에 한글로써 달아놓은 구결 곧 토를 언토(諺吐) 또는 언두(諺讀)라 부르는 일과 대립되는 용어로서 언역(諺譯) 또는 언석(諺釋)이라고도 한다”(한국문화사대사전:73) 이러한 언해의 정의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언해는 한문이나 백화문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이며 반드시 한글로 행해진 번역이라야 하고 <석보상절>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원문인 한문이 번역문과 대조되어 놓여야 한다. 이렇게 한문이 번역문과 병치되어 놓일 경우 원문에는 구결을 달아서 원문의 문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언해는 모든 언어를 대상으로 한 번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문과 대조해 놓음으로써 원문의 학습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조선조에 한정되어 나타난 특수한 방법의 번역이므로 언해는 번역이기는 하지만 번역의 일반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해번역]이라 하고 <언해식 번역>의 의미로 쓰기로 한 것이다.

조선조의 이러한 언해번역이 지닌 특징을 검토하는 데는 서론에서 밝힌 바대로 번역사가 지녀야 할 입장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핼교수가 제시한 가설이 유일무이한 번역사의 입장은 아니다. 성서 번역의 경우 제임스 세가 주도해서 번역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새로 번역에 사용된 영어가 17세기 영문학에 영향을 주었고 표준영어로 자리를 잡는데 성공함으로써 영어의 표준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언어학에서나 영어발달사에서 관심을 둘 사항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핼교수는 그의 가설에서 번역사는 번역이 이루어진 사회적 인과관계와 번역가 중심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번역사와 일반 언어사나 문화사와의 차별화에 적합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 할만하다.

언해번역의 특징을 분석해보기 위해서 국어학계에서 발굴한 자료를 주제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분류하여 이를 도표로 만들고 각 번역 작품의 해제를 찾아서 번역의 동기와 과정 등을 검토해보았다. 자료가 총망라된 것은 아니지만 언해번역이 지닌 전체적인 흐름과 특징을 밝히기에는 충분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방대한 언어자료를 한눈에 분석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無謀)함 그 자체(自體)라 할만하다. 그러나 조선조 언해번역의 언어적 특징과 변천과정을 밝히는 일은 앞서 펴교수의 가설을 인용하여 밝혔듯이 번역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닐 수 있다. 번역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헌의 번역을 누가 주도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관심은 거시적인 접근의 하나로서 매우 상식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언해번역 하나하나에 대한 자자구구의 정밀 검토 작업은 언어발달사의 연구과제나 기술번역학(記述翻譯學)의 연구과제로 돌리고 언해번역이 이루어진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 붙인 각 작품에 대한 개략적인 해제(解題)는 한국어학연구회가 편찬한 『국어사자료선집』(서광학술자료사, 1994)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발간한 『한국문화사대사전』(1995)에서 인용했다.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번역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는 것은 조선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에서이다. 우선 언해번역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음(正音),운서(韻書),역학(譯學)관련 언해

훈민정음(訓民正音)·동국정운(東國正韻)⁵⁾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사성통

5) 동국정운(東國正韻)은 언해번역서가 아니지만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중국의 한자발음체계를 바로잡아 우리의 음으로 표기한 일종의 한자발음사전이다. 훈민정음과 함께 성운학(聲韻學)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명나라 태조가 중국의 한자음을 정리하여 편찬한 홍무정운(洪武正韻)에 자극받아 편찬한 것으로 한자를 우리나라 발음으로 읽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통일을 가져오게 된 계기를 마련한다.

해(四聲通解), 훈몽자회(訓蒙字會), 봉천자문(石峰千字文),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 첩해신어(捷解新語),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역어유해(譯語類解), 화동정음통역운고(華東正音通譯韻考), 교린수지(交隣須知), 조선어초보(朝鮮語初步), 조선위국자휘(朝鮮偉國字彙)언문지(諺文志), 물명고(物名攷)

2) 불교(佛敎)관련 언해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석보(月印釋譜), 원각경언해(圓覺經諺解), 육조법보단경언해(六祖法寶壇經諺解),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 은중경언해(恩重經諺解), 권념요록(勸念要錄), 관음경언해(觀音經諺解), 관음보살주경(觀音菩薩呪經), 금강반야바라밀경언해(金剛般若波羅密經諺解), 남명집언해(南明集諺解),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몽산화상법어약록(蒙山和尚法語略錄), 묘법연화경언해(妙法蓮華經諺解), 아미타경언해(阿彌陀經諺解),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

3) 유교(儒敎)관련 언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번역소학(翻譯小學), 소학언해(小學諺解),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가례언해(家禮諺解), 양로무농(養老務農)윤음언해, 경민편언해(警民編諺解), 내훈(內訓), 명황계감언해(明皇誠鑑諺解), 사서언해(四書諺解), 여씨향약언해(呂氏鄉約諺解), 여훈언해(女訓諺解), 오륜가언해(五倫歌諺解), 칠서언해(七書諺解), 대학언해(大學諺解), 주역언해(周易諺解), 효경언해(孝經諺解)

4) 의서(醫書)농서(農書)무술(武術)등 기술 실무 관련 언해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產集要), 벽온신방, 동의보감(東醫寶鑑)마경초언해, 신간구황촬요(新刊救荒撮要), 신전자초방 무예도보통지언해(武藝圖譜通志諺解), 농서언해(農書諺解)

5) 문학 관련 언해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초간두시언해(初刊杜詩諺解) 중간두시언해(重刊杜詩諺解),

이상의 언해번역의 장르는 대체로 다섯 가지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장르마다 언해번역이 필요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 정음표기자료로 언해한 『훈민정음』이나 『동국정운(東國正韻)』,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몽어노걸대(蒙語老乞大)』, 『역어유해(譯語類解)』 등은 조선조는 초기부터 어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한 문물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 국가가 통일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어떤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서 들여와 사용해오던 한자의 발음이 여러 갈래여서 이를 시급히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다.

둘째, 불경 언해의 경우 배불숭유(排佛崇儒) 정책을 채택한 조선조이지만 민간에 뿌리내린 불교를 쓸어낼 수는 없었다. 왕실에서도 불교에 정진한 사례(事例)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터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불경의 언해는 불교국가였던 고려를 이어 나가는데 조정에서는 바닥의 민심을 읽고 이들의 환심을 사야 했기 때문이다.

셋째, 유교의 경전을 다수 언해한 것은 소학(小學)의 경우와 같이 유교의 경전이 대중교화에 필요했었고 대중교육을 넓혀야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며 유교를 국책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유교경전의 번역과 보급은 국가 운영의 방향과도 맞아 떨어지는 일이다. 넷째, 기술과 산업관련 서적의 언해는 조선조 특히 임란(壬亂)을 겪은 후반기에는 시민사회(市民社會)가 확대되고 기술이 보급되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조정의 입장에서 산업과 기술 관련 서적을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학에 관련된 언해가 표면적으로는 가장 적지만 이는 문학의 경우 바로 이 언문을 사용하여 직접 시조와 시가를 지었다는 점에서 번역의 수량이 적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조선조의 언해번역이 몇몇 왕의 재임시기에만 국한된다면 이를 조선조의 번역사적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종(端宗)과 같이 일부 왕은 재임 기간이 지극히 짧거나 재임기간 동안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언해와 같은 문화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었던 시기도 있었다. 언해번역의 지속성을 엿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대 언해번역의 상황을 도표로 제시해본다.

언해번역의 시대별 장르별 목록

| | 정음, 운서, 역학 | 불경 및 불교관련언해 | 유교경전언해 | 의서, 농서 등 실용서적언해 | 문학관련언해 | 참고 |
|-----------------|--------------------|-------------|------------------|-----------------|---------------|------------|
| 태조(1392-1398) | | | | | | 대명률직해 |
| 세종(1419-1450) | 훈민정음,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 | 석보상절, | | |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 삼강행실도 (원본) |
| 세조(1450-1468) | | 월인석보, 원각경언해 | | | | |
| 성종(1470-1494) | | | 삼강행실도 언해 | | 두시언해 | |
| 연산군 (1495-1505) | | 육조법보단 경언해 | | | | |
| 중종(1506-1544) | 훈몽자회, 사성통해, | | 번역소학 | | | |
| 인종(1545-1545) | | | | | | |
| 명종(1546-1567) | | 은중경언해 | | 구황촬요언해 | | |
| 선조(1568-1608) | 석봉천자문 | | 소학언해 | 언해두창집요, 언해태산집요, | | |
| 광해군 (1609-1622) | | | 동국신속삼강행실도, | 동의보감 | | |
| 인조(1623-1649) | | 권념요록 | 가례언해, | 마경초집언해 | | |
| 효종(1650-1659) | | | 경민편언해 | 벽온신방 | | |
| 현종(1660-1674) | | | | 신구황촬요 | | |
| 숙종(1675-1720) | 철해신어, 박통사언해, 역어유해 | 염불보권문 | | 신전자초방 | | |
| 영조(1725-1776) | 노걸대언해, 화동정음통석운고 | | | | | |
| 정조(1777-1800) | | | 오륜행실도, 양로무릉윤음언해, | 무예도보통지언해 | | |
| 순조(1801-1834) | 물명고, 언문지 | | | | | |

이상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언해번역은 훈민정음의 창제 더불어 시작되어 끊임없이 지속되어왔다. 이와 같이 언해번역이 지속되려면 왕조 정치시대의 조선조의 상황에서는 왕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 한 가지 사례로 세종 때의 삼강행실도의 간행을 들 수 있다.

언해번역이 있기 이전에 세종은 백성들의 윤리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실례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라는 책으로 나타난다. 이 책은 세종이 설순(契循)에게 명하여 조선과 중국에서 효자와 충신, 열녀 각 110명을 뽑아 처음에는 한문으로 그들의 행적(行蹟)을 기록했는데 이를 읽을 수 있는 백성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백성이 한문을 해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세종은 그 내용을 안견에게 명하여 『삼강행실도』의 내용을 백성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한문을 설명으로 붙이려 했는데 이 역시 백성들이 읽고 알아보기에는 불충분하였다. 그래서 세종은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후인 성종12년(1481)에 가서야 세종의 꿈은 이루어져서 『언해본 삼강행실도』가 효자 충신 열녀를 35명으로 줄여서 출간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야콥슨의 번역관의 입장에서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설순이 지은 『삼강행실도』가 원문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 역시 번역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같은 내용을 다른 기호인 그림으로 전달했으니 한국 번역사에서 기호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또 한문 <삼강행실도>가 언해된 것은 한자를 공식 한국의 문자로 보았을 때 같은 언어내적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공식 문자 간에 있었던 번역이기 때문이다.

5. 맺는 말

이제까지 논의한 언해번역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기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가장 가시적인 특징을 들어 언해번역이 지닌 번역사적 의의는 첫째,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이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문자인가’라는 문제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매우 심각하고도 긴장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전시대에 사용되어 오던 이두의 역할인 번역을 수행해 봄으로서 확인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훈민정의 반포와 동시에 많은 언해번역이 세종의 명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의 대업을 기획 추진한 세종자신도 『월인천강지곡』 등을 직접 언해번역 했으며 후대에도 조정에서

특히 왕이 관심을 갖고 언해번역을 즐기치게 추진했다는 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훈민정음을 정착시키는 일은 조선조 왕가의 지속된 관심사였고 이를 현실적으로 추진한 것이 언해번역이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서 조선의 문화가 가장 번창했던 시기인 영 정조 시대에는 더욱 많은 언해가 이루어졌음은 조선조 왕실의 문화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는 조선조의 문화를 유교 한문 문화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실 성리학(性理學)이 조선조의 사대부 학자들에 의해서 심도 있게 연구되고 그 성과도 크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에 의해서 추진되고 그 후 왕가의 끊임 없는 관심과 지원 아래서 지속적으로 계속된 언해번역은 한글을 오늘의 완벽한 문자로 만들고 우리의 어문체계를 중국에서 독립시켜 독자적인 어문문화를 이루어 내게 한 바탕을 마련한 일이다. 그렇다면 조선조의 문화는 2중의 열개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대부 계층이 추진하고 이루어낸 유교 성리학 중심의 한문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왕실이 주축이 되어 언해번역을 통해서 추진된 한국어 실체에 바탕을 둔 어문문화이다.

다음으로 언해번역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는 의의는 왕조 시대의 관심사의 하나인 민심을 얻어서 사직을 굳건히 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조선왕조의 정책 중에서 사직의 안정보다 앞서가는 정책은 없었을 것이며 왕조의 안정은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민심을 곧 하늘의 뜻’(民心卽天心)이라고 가르쳤던 유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왕가에서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한문 원전에서 언해하여 보급한 것은 사직의 안정을 꾀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사대부 계층이 한문문화에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과 정보에서 소외된 일반 백성과 부녀자의 입장에서 보면 언해번역은 바람직한 정보원이었을 것이다. 언해의 장르를 검토해보거나 언해가 이루어진 과정을 감안해보면 언해의 대부분은 이러한 각도에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중교화의 수단으로 각종 유교관련 서적의 언해가 이루어 졌고 민중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교의 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울러 국가의 안위를 항상 위협하는 괴질을 막는 일과 부녀자의 출산, 농업 양잠 기술 등은 민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담은 서책을 언해한 것은 언해를 통해서 국민교육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언해번역은 단순한 언어적인 목적에서 벗

어나 번역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언해가 ‘한글전용’의 다리를 놓을 것이라고 기대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언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한문시대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련에 봉착했을 때 훈민정음은 곧 우리의 글이라는 민족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이것은 바로 한글전용이라는 혁명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일으킨 바탕이 된 것이다. 이는 세종이 한글을 만든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지만 20세기에 들어와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오래 동안 한자에 의지해 왔기에 원래 한국어 가졌던 자체의 조어력(造語力)을 잃고 오늘의 외래어 번역에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선조 문화는 언해번역이라는 독창적인 문화를 이룩함으로써 오늘날 한자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놓아 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글창제와 언해번역을 통해서 세종대왕의 용의주도한 어문정책을 엿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세종대왕은 한국번역의 기초를 만들어준 <한국번역의 아버지>이며, 그로 인해서 조선조 문화가 중국 모방 일변도라는 따가운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은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항. 2000. 『한국의 역학』.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 1999.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김동소. 1998. 『한국어변천사』. 형설출판사.
_____. 2002. 『중세한국어개설』. 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김형주. 1995. 『국어학사』. 형설출판사.
남풍현. 1986. 『차자표기법연구』. 단대출판부.
남풍현회갑기념회. 1995.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이기문 외 6인. 1992. 『한국어문의 체문제』. 일지사.
이동림 외 27인. 1988. 『읽어야 할 국어학논문집』. 집문당.
배대운. 2003. 『이두사건』. 형설출판사.

- 정광. 1988. 『사역원 왜학연구』. 태학사.
- 정광·윤세영. 1998. 『사역원 역학서 책판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한국문화사대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어연구회. 1994. 『한국어사자료선집』. 서광출판사.
- 홍윤표. 1993. 『국어사문헌자료연구』. 태학사.
- Baker, M. ed. 1998.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Bassnett, S. 1980.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Delisle, J & Woodworth, J. 1995. *Translators through History*. Amsterdam: John Benjamins.
- Pym, A.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1998.



[Abstract]

Hangŭl *Ŏnhae* Translation as an Instrument of General Education

Ryu, Myoung-woo
(Honam University)

Hangŭl, the indigenous Korean alphabet, was created in 1446 by King Sejong and the group of scholars in his royal court. Its purpose was to provide common people with a language system with which they would be able to read and educate themselves. Chinese characters, the language of the ruling *yangban* class, were too complicated for the common people to learn.

Thus, the leaders of the *Chosŏn* dynasty were compelled to create a new writing system out of compassion for those who were uneducated and under privileged. In the early stages when the Hangŭl alphabet was just established, its inventors wanted to find out how well it worked and whether or not it was serving its original purpose. Consequently, they composed a national epic like *Song of Flying Dragon* in Hangul, and at the same time, translated various Chinese classics and Buddhist scriptures into Hangul, which was called “*ŏnhae*.”

The Hangŭl *ŏnhae* was basically a word-for-word translation, and its purpose was to provide practical and useful information to the general populace who were unable to read Chinese texts. This *ŏnhae* translation, being rather crude, often turned out to be inadequate in conveying the meaning of source texts. Nevertheless, it still proved to be instrumental to propagating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fields such as agriculture, medicine, religion, literature, and so on.

Before Hangŭl was created, Koreans had no choice but to use difficult Chinese characters, and this situation continued to produce a gap between the

educated and the uneducated, the privileged and underprivileged. Thus Koreans devised a writing system called “*hanja ch'ajabŏp*”, which uses Chinese characters for the oral sounds of Korean words. However, even this writing system, being arbitrary and complicated, failed to reach out to the common people.

The *ŏnhæ* translation that started in the mid-fifteenth century continued to proliferate until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producing a great deal of Hangŭl texts and at the same time solidifying the importance of Hangŭl as a national language. In addition to that, perhaps most importantly, it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Key Words: *ŏnhæ* translation, Hangŭl, Korean alphabet, King Sejong, history of translation, *hanja ch'ajabŏp*

K C I